경영사학 제23집 제2호
2008년 9월 한국경영사학회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

고 광 명**

요 약

본 연구는 기업가의 ≪個人履歷書≫ 자료를 통하여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 tab)이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 기업가의 출생 시기는 제3기(1900-1909)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경우에는 제4기(1910년 이후)와 제2기(1890-1899)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도 기업가의 출신지역은 북제주군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경우에는 제주시와 남제주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도 기업가의 학력은 I 유형에서 한문수학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IV유형인 경우에는 보통학교 출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주도 기업가의 업종은 IV유형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상업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주도 기업가는 일제하 제주도 토착자본을 바탕으로 도민자본을 형성하였고 신용과 근면, 절약을 상인정신으로 삼았으며 경영성과인 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기업가윤리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기업가(경영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제주도 기업가들은 기업가 유형에 따라 기업가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제주도, 기업가, 사회적 배경

* 이 연구는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S2033)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소 연구교수, kkm0630@jejue.ac.kr, 064-754-4788.

논문접수일(2008년 5월 6일) 논문수정일(2008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8일)

Ⅰ. 머리말

근대 이전 제주사회는 사업이나 상인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근대 이후 일반서민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여러 사상가에 의한 실업가(實業家) 중심의 경영이념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1]에 대해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기업가들의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높아졌다(강신일 · 이창원 1997; Baumol, W. 1993).

朝鮮實業信用大鑑(1931)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활동한 29명의 기업가 가운데 한국인은 18명(62%)으로 일본인 11명(38%)에 비해 다소 많았다. 이들 기업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요 업종은 잡화와 포목, 미곡 관련 업종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제주경제의 대표적인 근대기업가로 박종실(朴宗實)[2], 황순하(黃舜河)[3], 강성익(康性益)[4] 등을 들 수 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 이후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40년간 상공업 분야에 모범적 인물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한라산 북쪽에는 박종실(고광명 · 진관훈 2005, 3-31), 황순하(김희철 · 고광명 2005, 151-171), 서귀포 일대를 중심으로 한 한라산 남쪽에는 강성익(고광명 외 2006, 33-60)을 꼽는다.

하지만 이 시기는 주권이 상실되어 일제의 식민지지배 하에서 이중 삼중의 사회

1) 보몰(Baumol)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기업가정신의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공급이나 배분구조를 결정하는 데는 그 사회의 상대적 평가시스템(보상체계, 역할인식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박종실(1885-1966)은 호는 청암(晴岩)으로 1922년 제주상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운업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한 근대제주의 기업가이다. 그는 1922년 제주상선(주), 1924년 제주면업(주), 1925년 제주통운(주), 1928년 제주주조(주), 1934년 난곡면업(주), 1935년 제주상사(주), 1936년 삼일해운(주), 1939년 제주상운(주) 등의 취체역과 1935년 소화운송(주)의 감사역을 역임하였다.

3) 황순하(1896-1978)는 호는 우공(牛公)으로 다년간 양조업을 운영하여 자본을 축적하는데 성공하면서 제주양조(주), 鷄林자동차(주), 南星産業(주) 사장 등을 지냈으며 해방 이후에는 五賢學園을 설립하여 육영사업을 전개한 제주지역의 사업가이다. 그는 1939년 제주도어업조합 감사, 1941년 제주도물산(주), 제주해면기업(주), 興亞商工(주) 등의 사장, 1943년 영화 · 연극 및 부대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朝日俱樂部(사장은 일본인 萩原駒藏)를 설립하여 감사역을 맡았다.

4) 강성익(1892-1968)은 호는 남주(南洲)로 1928년 남부운수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서귀포를 기점으로 모슬포와 성산포간에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1960년에는 제주도지사를 역임한 제주지역의 사업가이다. 그는 1918년 통조림공장과 단추공장을 경영하였으며 1939년 제일전분(주), 1941년 제주산업(주), 1943년 제주자동차(주) 등을 운영하면서 취체역을 역임하였다.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며 생존에 급급했던 암울한 시기였다. 당시 제주경제는 생산이나 소비에 있어서 주체적 역량이 없이 식민지 모국, 즉 일본 국내시장에 대한 공산품 소비지역, 저렴한 노동력 공급원으로만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기업가들은 식민지를 통해 강제되어진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윤 창출과 부(富)의 확산 계기로 변화시켜 가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상점을 비롯한 제주도 공장·회사의 설립을 촉진시켰고 아울러 제주도민의 구매력 향상과 소비행태 변화, 시장거래의 증가와 같은 요소들로 인하여 성장하게 되었다(김희철 외 2006, 133-157). 그 이유는 제주도민의 일본이민, 해녀의 출가노동, 일본과의 교역을 통하여 상당한 자본 유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제주도 기업가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었으며, 제주도민들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주체적인 도민자본을 형성하면서 근대자본가 계층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광명 2005, 49-76).

한편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제주도 기업가들이 어떠한 개인적, 사회적 동기로부터 경제계에 투신하게 되었으며, 사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업가를 탄생시킨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경과에 따른 사회계층의 변화에 대한 그렇다 할만한 연구자에 의한 실적도 많지 않는 실정이다(鳥羽欽一郎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 근대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근대적 경영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계층에 속하였으며, 또는 출생시기, 출신지역, 학력, 업종, 설립시기, 경영정신, 사회적 공헌, 기업가적 특성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개인적 배경하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일제시기(1910-1945) 제주도 기업가를 탄생시킨 사회계층과 그 개인적 배경이 무엇이며,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의해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金粲洽編(2000)『20世紀 濟州人名事典』등에서 조사한 기업가(51명)를 대상으로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러한 과제를 설정한 이유는 최근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기업가들에게 바람직한 기업가적 활동을 모색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근대제주의 경제를 발전시킨 각 산업의 기업가들의 등장을 파악하고, 이들의

등장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기업가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연구대상 및 방법을 설정하여,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의 행위 특성

1) 기업가정신

기업가(entrepreneur)란 단어의 어원은 “기업에 자본을 대고, 그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기업가라는 용어는 “어떤 일이나 거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성공을 떠맡다(undertaking), 책임지다.”라는 뜻의 entreprendre에서 유래되었다(권남훈 외 1999).

Knight(1921)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기업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였다. 불확실성이 도입되면 의사결정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어떤 주어진 일을 실제 집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물을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은 확률에 대한 무지를 의미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담당하는 것이 기업가라고 생각했다. Kirzner(1973)는 불확실성 하에서 조정 등에 따른 경제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내부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협상 및 거래(arbitrage)를 통해 이윤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

Drucker(1985)는 기업가란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또한 변화를 기회로써 이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특유의 수단을 혁신(innovation)으로 보았다. Schumpeter(1991)는 기업가를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기업가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경제발전은 기업가에 의해 주도되며 기업가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고 혁신자이므로 그 기능은 일반적으로 신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발명, 신기술의 개척 또는 기존제품을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하는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그 개념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

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업가의 개념은 근대사회에서 복잡한 기업 활동의 제 기능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충분히 음미할 가치가 있는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업가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원을 조정하고 감독하여 부를 증진시키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의 행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창조성과 파괴성에 근거하여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혁신적 기능을 통해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가 역량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기업가는 장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창의력과 혁신, 도전정신을 통해 도민자본 형성에 유연하게 대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업가의 행위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기업가의 형태를 유형화하여 제주도 기업가 탄생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데 있다.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규명보다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 더욱이 최근 한국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하에서는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Cooper et al.(1987, 11-23)은 기업가 중에서 부모가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가인 경우가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시절 부모가 보여주는 기업가적 기질이 자녀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정환경 요소 중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기업가적 활동의 방향이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Cooper(1985)에 의하면 기업가들은 제품 또는 시장에 대한 친숙함이나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러한 경험이 많은 기업가는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Cooper et al.(1995)은 창업경험이 있으면 창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미 알 수 있고, 그것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실증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Lerner, Hisrich & Brush(1986, 315-339)는 이스라엘 여성기업가의 성과와 관련한

연구에서 사회학습이론(창업기업가 부모), 인적자본(학력, 이전직업, 이전창업경험, 이전직위, 사업기술 등), 동기·목적(성취동기, 자율성 동기, 경제적 동기), 네트워크(조언자, 인적 네트워크 수), 인구 통계적 변인(연령, 자녀수, 결혼여부), 환경요인(재정원천, 산업특성) 등의 요인과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통해 동기와 사회학습, 인적 네트워크, 이전창업경험, 직무경험, 기술, 환경 등의 요인이 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한편 Collins et al.(1964)에 따르면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특성상 남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며 상당히 개성들이 강하여 교육수준과 반비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와 비슷하게 Stuart et al.(1990, 215-230)은 신생기업의 성과에는 창업경험이 중요하며 기업가의 교육수준은 오히려 성과와 역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Cooper et al.(1987)은 중소기업의 창업자 890명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66%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교육정도는 기업가의 특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金泳謨(1971, 107-125)는 日帝時 대지주의 사회적 배경이 대단히 높고 권력, 즉 경제외적 방법에 의한 토지자본의 형성이 강력하였고 그들의 사회변동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권력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한상복(1997, 5-32)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豊基邑)의 직물산업 중소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행위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직물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은 초창기에 이북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본고장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 직물기업의 소유와 경영주체는 창업자들이 그들의 2세대보다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물기업가들의 사회계층과 생활양식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경제행위도 자산 및 투자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고 논술하고 있다. 김영수(1996)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51개의 표본기업을 분석하여 기업가의 배경적 특성과 기업가적 행동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는 기업가의 객관적인 요인보다는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 등 주관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덕훈(2003, 1-20)은 전후 일본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기업가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을 해명하였다. 전전의 산업계를 대표하던 기성재벌의 붕괴 후에 등장한 새로운 기업경영자의 세 가지 유형, 즉 전문경영자와 창업자형, 준 창업자형 기업가의 등장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의 등장과정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논하였다. 고광명(2006, 191-216)은 기업가의 ≪개인이력서≫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특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기업가의 출신성분에 따라 기업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방법론이나 연구목적이 유사한 일본에서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石川健次郎(1974, 85-117)는『大人名事典』의 직종란에 실업가라고 기술된 422명(조사항목은 출신, 가족 내 지위, 출생지, 최초 이주지, 교육지역 등)을 대상으로 메이지(明治)시대 기업가활동에 대해 통계적 관찰을 시도하였다. 青沼吉松(1965)는 최고경영층 420명(조사항목은 거주지와 출생지, 고등교육기관의 배치, 지역별경영자 배출비율, 학력 등)을 추출하여 1965년 전후에 주목된 일본적 경영의 봉건적 특징을 부정하지 않고 공업화와 관련하여 경제주체의 문제를 규명하였다. 일본의 경영층에 대한 경제주체의 근대성, 특히 전문공업화의 관점에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満成 博(1960)는 일본 산업계의 회장, 사장, 경제단체의 대표자 212명(조사항목은 출신, 학력, 업종별학력, 경력 등)을 조사하여 일본의 엘리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비즈니스 엘리트가 거대기업의 톱매니지먼트 지위에 이르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을 기초로 현대 비즈니스 엘리트가 연공서열제, 교육제도, 기업 내 관료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추적하였다. Hirshmeier(1964)는 일청(日淸)전쟁 이전에 혁신적인 활동을 행하고 적어도 현저한 성공을 거둔 50명(조사항목은 출생년도, 출신계급, 실무훈련, 업적 등)을 추출하여 메이지시대 기업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는 기초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재벌창업자 이외에도 혁신성과 지도력을 지닌 실업가의 고찰을 통하여 메이지시대 기업가의 일반성에 대해 검증을 행하였다. 淺野俊光(1980, 87-115)는 일본 공업화 시대에 적극적인 활동을 나타낸 인물 212명(조사항목은 출생연도, 출신계급, 훈련, 도시, 기업유형 등)을 추출하여 일본의 공업화 기반을 농촌에서 찾아야 한다며 각 계층에서 배출하는 '다원적 공업화(多元的 工業化)' 입장에서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정부의 기업가적 노력 혹은 재벌의 활동을 일본자본주의 발전의 지주로서 중시하였기 때문에 도시의 대재벌, 지도력 있는 대 실업가에 조사의 초점이 지나치게 편중했음을 인식하였다. 麻生 誠(1970)는 출생연대별로 각각 127명과 120명의 비즈니스 엘리트(조사항목은 출신, 학력, 경력패턴, 엘리트의 학력구성,

평균연령 등)를 대상으로 사회체제의 폐쇄성과 개방성, 고정성과 유동성을 염두에 둔 사회적 성격의 결정요인, 역할규정에의 영향, 출신계급과 이익의 관계인 '체제엘리트(體制エリート)'의 사회적 출신계층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상황 속에서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를 다룬 연구는 高承濟(1975)의『韓國經營史硏究』정도이다. 이 연구는 1973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월간상의에 게재된「한국해운업의 전개와 제주상선회사의 지위」라는 논제아래 근대제주의 기업가에 대한 사적연구를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그 연구방향은 거시적 입장에서 기업가 역할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을 한국 기업가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외에 청암선생추모회(1979)의『청암선생－신용은 생명』, 박충훈(1988)의『이당 회고록』등이 있다. 또한 고광명·진관훈(2005, 3-31)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근대 무역인으로 한국해운업을 발전시키고 민족자본에 의해 근대 경제형성에 이바지한 晴岩 朴宗實의 기업가활동에 관한 개별기업가를 다루었다. 김희철 외(2006)는 최근『일제하 濟州島 기업가 연구』를 시도하면서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경영이념과 그 활동을 추적하여 각 기업가들에 나타난 특수성과 일반성을 토대로 제주도 회사의 발달사를 보다 생생하게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기존연구를 종합하면 기업가 연구와 관련하여 기업가정신 등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국내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과 특징이 대비되는 제주도 기업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제주도 기업가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가 기업가적 측면에서 기존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2. 일제하 한국 기업가의 시대사적 활동

1876년 이후 조선에 근대적인 회사 조직을 갖춘 기업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지만 서구의 초기 상업자본주의 시대에 보였던 합리적인 근대적 기업가는 탄생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개항(開港)에서 한말(韓末)에 이르기까지 개성(開城)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 가운데 탁월한 능력과 경영자적 소질을 가진 기업가적 상인들도 있었으나 그들의 존재하는 지역도 한정되었고 시대의 제약도 받았기 때문이다(李漢九 1989, 49).

한말의 민족기업가(民族企業家)는 일제 자본의 침투, 금융공황, 자본부족, 경영기술 부족 등으로 도산한 경우가 많았으나 일부 기업가는 계속 존속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상인에서 근대기업가로 변신한 이른바 상인·서민출신의 기업가는 영리에 예민하고 환경 적응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들은 개항 이후의 새로운 상업관계에서 점차 근대기업의 체험을 쌓으면서 1900년대부터 근대기업가로 등장하였던 것이다(黃明水 1976, 107).

이후 1905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1910년 한일병합(韓日倂合) 및 조선회사령(朝鮮會社令)의 제정 등에 의해 민족기업의 설립이 크게 억제되었으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약간의 민족기업이 새로 설립되기도 하였다. 1920년 조선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조선인의 회사설립은 완화되어 민족기업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갔다. 1920년을 전후하여 지주출신의 기업가들이 근대기업의 설립에 대거 진출하였다. 그들은 한말의 귀족·관료출신의 기업가인 경우와는 달라서 기업경영에 실패하지는 않았으며, 근대 기업경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훈련을 쌓아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지출출신의 기업가 이외에 서민출신의 기업가도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상업·농업분야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은 대개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기에 점원이나 사환(使喚) 등으로 고용되어 사업경영을 쌓은 후 사업계에 진출하여 기업가가 되었던 것이다(趙璣濬 1973, 245). 1930년대는 일본 재벌계회사(일본 독점자본)가 대거 조선에 진출하면서 중공업의 발달이 본격화되었다. 일제하의 민족기업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라는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조선인 재벌기업도 탄생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민족기업가는 민족주의의 정신에 입각하면서도 기업의 수지타산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갖는 생리가 영리추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黃明水 1976, 132).

결국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민족기업가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었으며, 조선인들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주체적인 민족자본을 형성하면서 근대기업가 계층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일제하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배경

근대제주의 기업가활동에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한 일제하 제주경제의 변동을

살펴보면 일제하 제주경제는 많은 경제적 변동을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제주도민의 도일 증가 둘째, 출가해녀의 증가와 해녀경제의 성장 셋째, 1930년대 제주도 농촌에서 상품작물·환금작물 재배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제주도에는 자본이 축적되고 축적된 자본은 소비로 이어져 제주도 기업의 영업활동은 물론 제주도 시장거래가 활성화 된다. 우선 해녀의 노동은 제주경제가 이륙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전까지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무시되어 오던 해녀노동이 해산물 수요시장이 확대되고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해녀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해녀노동으로 인한 소득은 자급자족적이고 저개발 상태에서 악순환 되어오던 제주경제에 커다란 활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1922년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로 제주도 인구 1/4 이상이 도일하여 식민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도일 제주도민의 송금액과 해녀들의 도일로 인한 송금액을 합친 통화량은 당시 제주경제 전체통화량의 1/3에 달하였다. 이와 함께 1930년대 제주도 농촌의 농업생산량 증가도 제주경제 기반형성에 한몫 하였다. 즉 고구마, 제충국, 박하 등의 환금작물 재배가 증가하고 기존 곡물작물의 품종 개량 등을 통하여 생산량이 늘어나 1930년대에 이르면 제주도 농촌은 기존 자급자족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존적인 자본주의적 농업생산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상의 요소들로 인하여 제주도 사회에 현금보유와 저축이 늘어나고 그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자본축적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1930년대 제주도 사회의 자본증가 및 축적 현상은 제주도 기업의 설립을 촉진시켰고 아울러 제주도민의 구매력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 시장거래의 증가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였다(진관훈 2004).

결국 이 당시 제주도 회사의 자본은 매우 독립적이고 일인자본에 비해 생산이나 수익성면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이는 육지부 논농사 지대에 비해 제주도는 토지자본의 축적은 미약하였으나 제주도민의 도일, 해녀노동, 해녀출가, 상품작물·환금작물 재배확산에 따른 제주도 경제의 현금보유 확대와 농업생산력 증대 등에 의해 형성된 순수노동자본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일제하 제주도 회사들은 당시 소비증가, 소비행태 변화에 영향을 받은 이입대체품 생산, 판매나 현금화에 용이한 상품경제화 품목, 일제의 전쟁수행에 부합되는 군

수물자 생산 등에 주력하며 생산전략을 활발히 펴 나갔다(김희철 외 2006).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金粲洽編(2000)『20世紀 濟州人名事典』, 제주도(1996)『濟州抗日獨立運動史』, 김찬흡편(2005) 『제주항일인사실기』, 국사편찬위원회(한국근현대인물자료), 제주상공회의소(1996, 2000), 朝鮮總督府官報, 면접조사 등에서 조사한 기업가(51명)의 자료를 기본적인 원 자료(raw data)로 하고 있다. 원래 이 자료는 제주문화원(2000)이 발간한『20世紀 濟州人名事典』에 포함된 기업가(29여명)와 제주도(1996)『濟州抗日獨立運動史』 등에 게재된 상인(19여명), 면접조사 3명을 모두 합계한 51명의 ≪個人履歷書≫에 관한 자료이다(〈부록 3〉 참조).

이처럼 본고에서 이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첫째, 1890년 이전부터 1910년 이후에 출생한 주요 기업가(상인)가 거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출신의 사회계층이나 개인적 배경을 시계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도 기업가(51명)를 조사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시기별로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본특성으로서 추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가별 내용이 개인적 배경을 포함한 출생년도, 출신지역, 교육, 업종, 설립시기, 경영정신, 사회적 공헌, 기업가적 특성 등 외부적, 내부적 요인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의 조사 자료는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5가지 표본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우선 기입하고, 이에 근거하여 명목척도로 측정한 자료임을 밝혀둔다.

2. 연구방법

본 자료는 원래 기업가(51명) 조사를 통해 얻은 내용을 Data Sheet로 전기하여 각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구체적

수치와 같은 기본정보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의 자료에 수록된 모든 사회적 배경과 관련한 수치를 M/S Excel 프로그램에 Coding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 기업가의 목록자료를 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51명의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출생 시기, 출신지역, 학력, 업종, 설립시기, 경영정신, 사회적 공헌, 기업가적 특성 등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0.0 version이고,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 tab)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의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6년 동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주요 기업가(상인)를 대상으로 5가지 항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기업가 유형인 경우는 원래 실업가, 행정가, 정치가, 독립운동가 등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제시되었으나, 가장 빈도가 높은 실업가를 중심으로 그 이외의 항목을 하나로 하여 '실업가', '실업가와 행정가', '실업가와 정치가', '실업가와 독립운동가'와 같은 4개 항목을 갖는 명목척도로 변환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업가활동과 관련하여 많이 표현된 기업가를 대상으로 2개 이상의 활동경력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연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것은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경영활동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속한 사회적 지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② 출생 시기인 경우는 제1기(1890년 이전), 제2기(1890년-1899년), 제3기(1900년-1909년), 제4기(1910년 이후)와 같이 4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가의 출생 시기를 구분한 것은 시대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단지 이러한 구분방법은 일단 연구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구분하기 쉽게 0으로 끝나는 10년 단위로 구분한 것이다. ③ 출신 지역인 경우는 원래 제주면(제주읍), 우면(서귀면), 좌면(중문면), 신우면(애월면), 구우면(한림면), 신좌면(조천리), 구좌면, 대정면(상모리), 중면(안덕면), 성중면(남원면), 동중면(표선면), 정의면(성산면)과 같이 12가지 항목으로 제시되었으나, 제주시(제주면), 서귀포시(우면, 좌면), 북제주군(신우면, 구우면, 신좌면, 구좌면), 남제주군(대정면, 중면, 성중면, 동중면, 정의면)과 같은 4개 항목을 갖는 명목척도로 변환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을 4개의 카테고리로 묶은 이유는 당시 기업가의 활동 지역을 감안하여 1946년 도제(道制)실시 이후 4개 지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④ 학력인 경우는 본래 한문수학, 보통학교, 중등학교, 전문학교과 같이 중퇴와 졸업을 포함한 7개 항목으로 구분되었으나,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퇴와 졸업'을 하나로 묶어 4개 항목을 갖는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⑤ 업종인 경우는 제조업(통조림가공업, 단추제조업, 제재업 등), 주조업(양조업), 운수업(운송업, 해운업 등), 상업(잡화상, 양화상, 미곡상, 주류상, 포목상, 매약상, 어물상, 해산물상경영 등), 기타(어업조합경영, 소비조합경영, 재봉틀경영, 양묘업, 표고업 등)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 설립시기, 경영정신, 사회적 공헌, 기업가적 특성 등은 朝鮮總督府(각 년도)『朝鮮總督府官報(1910-1945)』, 岡田寅喜編(1930)『朝鮮實業信用大鑑』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회적 배경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IV. 연구결과

1. 표본 특성

본 연구결과에서는 제주도 기업가(51명)를 조사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ding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전반적인 경향과 항목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1〉은 제주도 기업가들의 표본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제주도 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 즉 출생 시기는 제3기(1900-1909) 31.4%, 출신지역은 북제주군 47.1%, 학력은 보통학교 35.3%, 업종은 상업 5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위의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업가 형태를 분류하여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기업가 형태의 경우는 가장 빈도가 높은 실업가를 중심으로 그 이외의 항목을 하나로 하여 '실업가', '실업가와 행정가', '실업가와 정치가', '실업가와 독립운동가'와 같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제주도 기업가(51명)를 4가지 유형(I 유형 : 주로 실업가인 경우, II유형 : 실업가이면서 행정가인 경우, III유형 : 실업가이면

서 정치가인 경우, IV유형 : 실업가이면서 독립운동가인 경우)으로 분류하였다. Ⅰ유형은 6명, II유형은 5명, Ⅲ유형은 5명, IV유형은 35명으로 각각 분류되었으며, 특히 이 4가지 유형 가운데 IV유형에 35명이 해당되어 기업가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 표본 특성

구분	변수	빈도	%	구분	변수	빈도	%
출생 시기	1890년 이전	9	17.6	출신 지역	제주시	15	29.4
	1890-1899	12	23.5		서귀포시	2	3.9
	1900-1909	16	31.4		북제주군	24	47.1
	1910년 이후	14	27.5		남제주군	10	19.6
학력	한문수학	9	17.6	업종	제조업	7	13.7
	보통학교	18	35.3		주조업	3	5.9
	중등학교	9	17.6		운수업	6	11.8
	전문학교	8	15.7		상업	30	58.8
	기타	7	13.7		기타	5	9.8

2. 사회적 배경 특성

1) 출생 시기별 특성

제주도 기업가 유형에 따른 출생 시기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Ⅰ, II, Ⅲ유형인 경우는 전반적으로 출생 시기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지만 제1기(1890년 이전)와 제2기(1890-1899)에 출생한 경우가 다른 시기에 출생한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IV유형인 경우는 다른 유형인 경우와 비교할 때 제3기(1900-1909) 비율(31.4%)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제4기(1910년 이후)인 경우가 23.5%, 제2기(1890-1899)경우도 11.8%로 나타났다.

〈표 2〉 출생 시기별 특성

구 분		Ⅰ유형(n=6)	Ⅱ유형(n=5)	Ⅲ유형(n=5)	Ⅳ유형(n=35)
		실업가	실업가+행정가	실업가+정치가	실업가+독립운동가
출생시기	제1기 (1890년 이전)	3(5.9)	4(7.8)	1(1.9)	1(1.9)
	제2기 (1890-1899)	3(5.9)	-	3(5.9)	6(11.8)
	제3기 (1900-1909)	-	-	-	16(31.4)
	제4기 (1910년 이후)	-	1(1.9)	1(1.9)	12(23.5)

2) 출신 지역별 특성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가 유형에 따른 출신 지역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Ⅱ, Ⅲ유형인 경우는 Ⅳ유형보다 전반적으로 출신 지역별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Ⅳ유형인 경우는 출신 지역별 분포가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갖는 특성을 나타내면서 북제주군 비율(35.8.%)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제주시인 경우가 19.6%, 남제주군인 경우도 11.8%로 나타났다.

〈표 3〉 출신 지역별 특성

구 분		Ⅰ유형(n=6)	Ⅱ유형(n=5)	Ⅲ유형(n=5)	Ⅳ유형(n=35)
		실업가	실업가+행정가	실업가+정치가	실업가+독립운동가
출신지역	제주시	1(1.9)	3(5.9)	1(1.9)	10(19.6)
	서귀포시	-	-	1(1.9)	1(1.9)
	북제주군	2(3.9)	2(3.9)	2(3.9)	18(35.3)
	남제주군	3(5.9)	-	1(1.9)	6(11.8)

3) 학력별 특성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가 유형에 따른 학력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유형인 경우는 한문수학 비중(11.8%)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Ⅱ, Ⅲ유형인 경우는 전반적으로 학력별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Ⅳ유형

인 경우는 이것에 해당되는 기업가의 수가 가장 많은 유형(35명)으로 분류되었고, 학력별 분포가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갖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학교와 기타 비율(각각 11.8%)이 같게 나타났고, 보통학교인 경우가 27.5%, 중등학교인 경우도 17.6%로 나타났다. 특히 IV유형은 한문수학 비율이 한명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유형인 경우와 비교할 때 보통학교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 학력별 특성

구 분		Ⅰ유형(n=6)	Ⅱ유형(n=5)	Ⅲ유형(n=5)	Ⅳ유형(n=35)
		실업가	실업가+행정가	실업가+정치가	실업가+독립운동가
학력별	한문수학	6(11.8)	2(3.9)	1(1.9)	-
	보통학교	-	3(5.9)	1(1.9)	14(27.5)
	고등학교	-	-	-	9(17.6)
	전문학교	-	-	2(3.9)	6(11.8)
	기타	-	-	1(1.9)	6(11.8)

4) 업종별 특성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가 유형에 따른 업종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Ⅱ, Ⅲ유형인 경우는 Ⅳ유형보다 전반적으로 업종별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Ⅳ유형인 경우는 업종별 분포가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갖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업(52.9%)이 비교적 높게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표 5〉 업종별 특성

구 분		Ⅰ유형(n=6)	Ⅱ유형(n=5)	Ⅲ유형(n=5)	Ⅳ유형(n=35)
		실업가	실업가+행정가	실업가+정치가	실업가+독립운동가
업종별	제조업	2(3.9)	-	2(3.9)	3(5.9)
	주조업	1(1.9)	1(1.9)	-	1(1.9)
	운수업	-	3(5.9)	1(1.9)	2(3.9)
	상 업	3(5.9)	-	-	27(52.9)
	기 타	-	1(1.9)	2(3.9)	2(3.9)

5) 설립 시기별 특성

〈부록 1〉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제주도내 설립된 회사는 52개사이다. 이러한 회사설립은 1920년대 8개사에 불과하였으나 1930년대 18개사, 1940년대 23개사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자본규모별 현황을 보면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가속화됨에 따라 회사설립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자본금 10만圓 이하의 회사설립도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자본금이 30만圓 이상의 2개사는 일본인이 설립한 제주도어업(주)과 제주자동차(주)로서 대규모 자본금에 따른 제주인의 회사설립은 거의 없었다. 이에서 보면 당시 제주자본은 규모 면에서 30만圓 미만이 한계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16개사(자본금 총액 1,125,000圓), 운수업 16개사(자본금 총액 970,950圓)가 진출하여 각각 전체의 30.7%를 점하고 있었다. 그 외에 상업에는 전체의 15.3%에 해당하는 8개사(322,000圓)가 진출하였고, 양조업 7개사(558,000圓), 수산업 3개사(302,000圓), 전기업 1개사(100,000圓), 기타 영화·연극 1개사(21,000圓)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30개사, 일본인 18개사, 한일합자 4개사이며 그 중에 34개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여했던 회사들이다. 이를 회사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43개사, 합자회사 4개사, 합명회사 4개사, 유한회사 1개사로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설립회사의 소멸형태를 보면 해산 12개사, 합병 1개사, 상호변경 6개사 등으로 해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멸 시기인 경우에도 1920년대 1개사, 1930년대 5개사, 1940년대 13개사로 대부분의 회사가 1940년대에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당시 한국인 회사설립에 제주도민의 토착자본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일본인의 회사설립에 비해 12개사 정도 많았지만 자본금에서는 다소 적은 편에 속한다.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주력한 산업분야는 제조업, 운수업, 상업 등이었으며, 특히 한국인은 주조업 분야의 회사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제주자본의 규모나 당시 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민들이 투자하기에는 주조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제주도민의 중심이 된 회사설립은 식민지체제 하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체제에 편입되어 갔다는 점에서 일면 제한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주체적인 도민자본을 형성하였고 제주도 최초의 근대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어 갔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6) 경영정신 특성

제주도 기업가들은 신용과 근면, 절약을 상인정신으로 삼았으며 信用第一主義의 경영정신을 바탕으로 현금과 부동산 그리고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도를 낮추고 시세변동에 대비하는 방식을 가진 사업가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 기업가의 경영정신은 信用第一主義, 三均配之論 投資觀[5], 合理的인 企業經營觀 등으로 집약해 볼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제주도 기업가들은 진리탐구정신, 청렴결백성, 근검절약정신 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 사회적 공헌 특성

제주도 기업가는 교역을 통하여 일본인으로부터 피해를 막고 국가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으로 제주지역 경제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였고 제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또한 기업경영 활동을 통한 이익을 부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도립도서관 기증, 경로당 건립, 육영사업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범적인 기업가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6] 특히 육영사업은 제주교육 분야에서 대단한 결단이고 획기적 사건으로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제주의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오늘의 제주를 창조한 초석이었다고 사료된다. 그들의 노력으로 일제의 침탈과 지역적으로 고립된 섬에 불과하던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현재 제주경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제주도민들을 일제자본, 일본인에 의한 상행위독점들로부터 지켜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

5) 朴宗實을 포함한 제주도 기업가의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재산 중 삼분의 일은 현금, 삼분의 일은 부동산, 나머지 삼분의 일은 상품으로 균배해 놓고 향후 물가의 변동 등과 같은 불규칙한 경제변동 시에도 위험을 분산시켜 장기간으로 보면 큰 이익은 없다 할지라도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본의 구성을 현금, 상품, 부동산의 삼분법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으로 위험을 줄이면서 폭리나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투자관으로 현대 경영학의 개념에서 보면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라고 할 수 있다.

6) 예를 들면 朴宗實은 제주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높은 뜻을 세우고 1957년 제주시 삼도1동 235-25번지의 토지(부지 310평, 건평 1173평)를 매입하고 그 곳에 본관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6월 1일 제주도에 제주도립도서관을 기증하였다. 黃舜河는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내놓아 1946년 2월 제주제일중학원(현 五賢學園)을 설립하였다. 당시 그는 학교설립 기본 재산으로 현금 100만圓과 토지 21만 7,947평(한림면 협재리 2435번지 외 315필지, 시가 435만圓 상당)을 기부하였다. 康性益은 1955년 南洲學園 설립을 위해 고향 법환리에 있는 3천 평의 토지를 처분하고 그 밖에 토지와 현금 등을 동원하여 1억 5천만圓에 달하는 학교설립 기금을 마련하여 기부하였다.

현재의 제주도 기업가들에게 좋은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다.

8) 기업가적 특성

〈부록 2〉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910년대에는 일본인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많았으나, 1920년대에 이르러 한국인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간 판매한 매출액은 박종실이 4만6천8백圓으로 제주도에서는 제1위를 차지하였으나 제2위는 崔允淳으로 4만3천圓, 제3위는 村田嘉藤治으로 4만2천圓이었다. 한편 부동산 등 재산총액을 비교하여 보면 박종실의 소유한 재산총액은 8만5천圓이었으며 최윤순은 4만6천圓, 村田嘉藤治은 5만5천圓이었다. 그 외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3만5천圓에서 6천2백圓에 이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순자산은 박종실이 7만圓, 角 健輔이 6만5천圓, 최윤순과 石井榮太郎이 3만圓을 차지하였다. 신용은 A, B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 동업자 지위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하였으나, 지불상태, 業態부분에서는 B급, C급 상태였다. 이러한 제주도 기업가들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노력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 일제시기 다수의 법인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 몇몇 회사를 살펴보면 제조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창고업 등 비교적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당시 제주도민들 가운데 유력자본가들은 자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인이 설립한 회사와 경쟁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金粲洽編(2000)『20世紀 濟州人名事典』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기업가 관련 연구를 기업가정신 등에 한정되어 다루는 연구 분야에서 향후 연구주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 기업가의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출생 시기는 제3기(1900-1909) 31.4%, 출신지역은 북제주군 47.1%, 학력은 보통학교 35.3%, 업종은 상업 5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둘째, 제주도 기업가의 출생 시기를 살펴보면 Ⅰ, Ⅱ, Ⅲ유형인 경우는 전반적으로 출생 시기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Ⅳ유형인 경우는 다른 유형인 경우와 비교할 때 제3기(1900-1909) 비율(31.4%)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제4기(1910년 이후)인 경우가 23.5%, 제2기(1890-1899)경우도 11.8%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도 기업가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Ⅰ, Ⅱ, Ⅲ유형인 경우는 Ⅳ유형보다 전반적으로 출신 지역별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Ⅳ유형인 경우는 다른 유형인 경우와 비교할 때 북제주군 비율(35.8.%)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제주시인 경우가 19.6%, 남제주군인 경우도 11.8%로 나타났다.

넷째, 제주도 기업가의 학력을 살펴보면 Ⅰ유형인 경우는 한문수학 비중(11.8%)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Ⅳ유형인 경우는 전문학교와 기타 비율(각각 11.8%)이 같게 나타났고, 보통학교인 경우가 27.5%, 중등학교인 경우도 17.6%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주도 기업가의 업종을 살펴보면 Ⅰ, Ⅱ, Ⅲ유형인 경우는 Ⅳ유형보다 전반적으로 업종별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Ⅳ유형인 경우는 업종별 분포가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갖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업(52.9%)이 비교적 높게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제주도 기업가의 회사 설립은 식민지체제 하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 체제에 편입되어 갔다는 점에서 일면 제한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주체적인 도민자본을 형성하였고 제주도 최초의 근대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어 갔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일곱째, 제주도 기업가는 신용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근면과 절약을 바탕으로 한 성실하고 검소한 경영정신을 지녔으며, 또한 부를 축척하여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경영자윤리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특성을 발견하였다. 첫째, 제주도 기업가의 출생 시기는 제3기(1900-1909) 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경우에는 제4기(1910년 이후)와 제2기(1890-1899)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주도 기업가의 출신지역은 북제주군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경우에는 제주시와 남제주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주도 기업가의 학력은 Ⅰ유형에서 한문수학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Ⅳ유형인 경우는 보통학교 출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주도 기업가의 업종은 Ⅳ유형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상업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주도 기업가는 일제하 제주도 토착자본을 바탕으로 도민자본을 형성하였고 신용과 근면, 절약을 상인정신으로 삼아 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기업가(경영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기업가들은 기업가 유형에 따라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제주도는 근대화 과정에서 관료전직자가 기업을 경영한 경우도 다소 있었지만 대부분 기업가들이 창업경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제주도는 기업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학력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기업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제주도 기업가는 실업가 중심의 유형에서 행정가와 정치가를 결부한 유형으로 기업가의 행위 특성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분류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욱이 국내에서 발간된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경험적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시점에서 기존자료를 통하여 기업가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金粲洽編(2000)『20世紀 濟州人名事典』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전개하였으므로 자료수집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시키고, 국가간 사회적 배경의 비교를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시키면서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

에서 이용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특성에 대해서도 학술적 연구가 부족하고,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보다 구조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전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국가 및 지역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활동한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대상으로 고찰을 시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본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밀화하면서 1945년 이후에 활동한 기업가를 토대로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신일 · 이창원, 1997,「한국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성장」, 자유기업센터.

岡田寅喜編, 1931,「朝鮮實業信用大鑑」, 日本興信所京城支所.

고광명, 2005,“일제하 濟州島 기업가의 공장 · 회사설립과 경영활동 – 南洲 康性益과 牛公 黃舜河를 중심으로”, 濟州島硏究 제27집: 49-76.

고광명, 2006,“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 東亞硏究 제51집: 191-216.

고광명 · 진관훈, 2005,“제주도 기업가 晴岩 朴宗實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3-31.

고광명 · 진관훈 · 김희철, 2006,“제주도 기업가 南洲 康性益 연구”, 濟州島硏究 제29집: 33-60.

高承濟, 1973,“韓國海運業의 展開와 濟州商船會社의 地位”, 月刊商議 – 企業과 企業人의 回顧 5월호.

高承濟, 1975,「韓國經營史硏究」, 韓國能率協會.

권남훈 · 윤충환 · 김운호 · 김은민, 1999,「정보통신 중소기업가의 특성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金泳謨, 1971,“日帝時 大地主의 社會的 背景과 移動”, 아세아연구 제14집: 107-125.

金粲洽編, 2000,「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김영수, 1996,「기업가적 행동성향의 결정요인과 성과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찬흡편, 2005,「제주항일인사실기」, 북제주군 북제주문화원.

김희철 · 고광명, 2005,“제주도 기업가 牛公 黃舜河 연구”, 濟州島硏究 제28집: 151-171.

김희철 · 고광명 · 강영순 · 진관훈, 2006,“일제하 제주도 기업가 연구 – 청암 박종실과 남주 강성익의 기업가활동을 중심으로”, 經營史學 제21집 제1호: 133-157.

김희철 · 고광명 · 진관훈, 2006,「일제하 濟州島 기업가 연구」, 아트21.

박충훈, 1998,「이당 회고록」, 박영사.

이덕훈, 2003,“戰後 日本의 企業家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 日本文化學報 제17권: 1-20.

李漢九, 1989,「日帝下 韓國企業設立運動史」, 青史.

濟州道, 1996,「濟州抗日獨立運動史」.

濟州商工會議所, 1991,「濟州商議五十五年史」.

濟州商工會議所, 2000,「濟州商議六十午年史」.

趙璣濬, 1973,「韓國企業家史」, 博英社.

朝鮮總督府, 각 년도,「朝鮮總督府官報(1910-1945)」.

진관훈, 2004,「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청암선생추모회, 1979,「청암선생－신용은 생명」, 일간내외경제코리아헤럴드.

한상복, 1997,“풍기(豊基) 직물산업 중소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행위”, 농촌사회 제7집: 5-32.

黃明水, 1976,「企業家史硏究」, 檀大出版部.

靑沼吉松, 1965,「日本の經營層」, 日本經濟新聞社刊.

淺野俊光, 1980,“明治よりみた企業家の分析”, 經營史學 第14卷3號, 日本經營史學會: 87-115.

鳥羽欽一郎, 1988,「日本における企業家・經營者の硏究」, 早稻田大學産業經營硏究所.

石川健次郎, 1974,“明治期における企業家活動の統計的觀察”, 大阪大學・經濟學 第23卷4號, 大阪大學經濟硏究所: 85-117.

滿成 博, 1960,「ビジネス エリート」, 中央公論社刊.

麻生 誠, 1970,「大學と人材育成」, 中央公論社刊.

Baumol, W., 1993, *Entrepreneurship, Management, and the Structure of Payoff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Collins, O. F. & G. Moore, 1964, *The Enterprising Man, East lansing.* MI.

Cooper, A. C. & F. G. G. Gascon, 1995, Entrepreneurs, Processes of Founding and New Firm Performance, In D. L. Sexton & J. D. Kasard(Eds.).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PWS-KENT.

Cooper, A. C. & W. C. Dunkelberg, 1987, Entrepreneurial research : Old questions, new answers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3): 11-23.

Lerner, M., Brush, C. & Hisrich, R., 1997, Israeli women entrepreneurs : An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4): 315-339.

Cooper, A. C., 1985, The role of incubator organization in the founding of growth-orient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75-86.

Drucker, P.,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 Practice and Principles,* Harper and Row Publisher.

Hirshmeier, 1964, *The Origin of Entrepreneurship in Meizi Japan*(土屋喬雄・由井常彦訳,「日本における企業者精神の生成」, 東洋経済新報社, 1965).

Kirzner, I., 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The University of Chicago.

Knight, F., 1921, *Risk, Uncertainly, and Profit,* Houghton and Mifflin.

Schumpeter, J. A., 1991,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tuart, R. W. & P. A. Abetti, 1987, Start-up ventures :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15-230.

A Study on the Social Background of Jejudo Entrepreneur under Japanese Imperialism

Kwang-Myong K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background which were characteristics of Jejudo entrepreneurs through the research sources, that is 'personal history(personal statements, resume) of entrepreneurs'. The analysi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irth time of the Jejudo entrepreneurs was in 3rd(1900-1909) for the most part, the rest belonged in 4th(1910 after) and in 2nd(1890-1899) with sequence. Second, around half of Jejudo entrepreneurs had Bukjejugun as their hometown, the rest of them had Jeju city and Namjejugun as their hometown. Third, Jejudo entrepreneurs in the type 'I' studied Eastern ideas, Jejudo entrepreneurs in the type 'IV' had primary school as last degree mostly. Fourth, Many of jejudo entrepreneurs in the type 'IV' had commerce as their major compared with other type. Fifth, Jejudo entrepreneurs accumulated wealth with a modern company, and then their contributed money to the local community and showed ethical business of social-oriented or community based entrepreneurship.

The result of this study gives entrepreneurs(CEO) suggestions in the time with increasing concerns about the social background of entrepreneurs. Also, this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at the social background of Jejudo entrepreneur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entrepreneurs.

〈Key Words〉 Jejudo, entrepreneur, social background

* Research professor, Teachers College, Cheju National University

〈부록 1〉 제주도 회사설립 현황(1910-1945)

회사명	대표자	년도	국적	소재지	영업목적	자본금	소멸 시기	소멸 형태
(자)해륙운송	김현우	1910	한국	제주군	운송업	450		
제주물산(주)	현기봉 외	1919	한국	제주면	무역, 판매업	2,000		
개발상사(명)	谷 亥造	1919	일본	제주면	해산물매매, 중개업	50,000	1922	해산
제주상선(주)	김응두, 고석종	1922	한국	제주면	해운업, 금전대부업	150,000	1934	해산
만길(명)	김영진	1923	한국	대정면	통조림, 단추제조업	10,000		
제주운송(자)	이윤희	1924	한국	재주면	운송업	10,000	1934	해산
제주면업(주)	김근시, 山口源藏	1924	한일	제주면	면화매매, 가공업	200,000	1943	해산
재주전기(주)	小昌武之助	1925	일본	제주면	전기기구 판매업	100,000	1936	합병
(주)제주통운	萩原駒藏, 최윤순	1925	한일	제주면	자동차운송업	6,000	1942	해산
제주남부운수(주)	川崎增造, 송문준	1927	한일	우면	자동차운송업	7,000	1942	해산
제주주조(주)	衛藤伊三郎, 角健輔	1928	일본	제주면	주류제조, 판매업	40,000		
조선옥도(주)	石渡吉治	1930	일본	제주면	옥도제조업			
호남어업(자)	양재룡	1933	한국	제주읍	어업 및 운반업무	2,000	1934	해산
난곡면업(주)	김근시	1934	한국	제주읍	면화매매, 가공업			
(주)제주해운상회	김임길	1935	한국	제주읍	해운업, 무역업	20,000		
제주상사(주)	박종실, 角健輔	1935	한일	제주읍	유통업, 보험업	30,000		
(자)伴商店	角健輔	1935	일본	제주읍	잡화판매업	30,000	1940	해산
소화운송(주)	김근시	1935	한국	제주읍	운송업	10,000	1942	해산
제주도산소주 판매(주)	이동일	1935	한국	제주읍	소주제조업	50,000	1940	해산
남선상사(주)	김영희	1936	한국	제주읍	무역, 창고, 해운업	50,000		
삼일해운(주)	김태민	1936	한국	제주읍	해운업	22,500	1939	상호 변경
→제주상운(주)	박종실	1939	한국					
제주도어업(주)	有吉京吉	1936	일본	한림면	어업 및 운송업	300,000		
(주)고정봉회조부	고정봉	1937	한국	한림면	화물 및 여객운송업	20,000	1941	상호 변경
→(주)竹中組	竹中新太郎	1941	일본					
제주목재(주)	문재석	1938	한국	제주읍	목재판매업	30,000		
제주도해조(주)	양두석	1938	한국	제주읍	해조류판매업	80,000	1940	상호 변경
→제주수산(주)	김근시	1940	한국	제주읍	어업, 수산물운송업			

회사명	대표자	년도	국적	소재지	영업목적	자본금	소멸 시기	소멸 형태
대정흥업(주)	김대유	1939	한국	대정면	농산물가공, 판매업	100,000		
제일전분(주)	강성익	1939	한국	서귀면	전분제조업	100,000		
성산주조(명)	한행서	1939	한국	성산면	주류제조, 판매업	28,000	1944	해산
제주도패구(주)	田中音吉	1940	일본	서귀면	패구제조, 판매업	50,000		
삼공주조(명)	강문옥	1940	한국	서귀면	주류제조, 판매업	40,000	1944	일시 해산
제주도산업상사(주)	大村降行	1940	일본	한림면	농축산판매 가공업	50,000		
조선제충국(주)	竹中新太郎	1940	일본	서귀면	제충국매매, 제조업	15,000		
제주산업(주)	竹中新太郎	1941	일본	제주읍	농산물가공, 판매업	100,000	1943	상호 변경
→제주산업개발(주)	大同源三郎	1943	일본					
제주도서부통조림(주)	太田富士太郎	1941	일본	대정면	통조림제조업	50,000		
성산통조림(주)	宇野正朗	1941	일본	성산면	통조림제조, 판매업	70,000		
제주통조림(주)	高山固岸	1941	일본	제주읍	통조림제조, 판매업	50,000		
한림운송(유)	李家輝保	1941	일본	한림면	회초류운반업	30,000		
제주도물산(주)	강영효	1941	한국	구좌면	해산물매매, 제조업	100,000	1943	상호 변경
→(주)신농상점	강영효	1943	한국	구좌면	선박, 화객운송업		1945	상호 변경
→구좌운송(주)	강영효	1945	한국					
흥아상공(주)	황순하	1942	한국	제주읍	해태건조용 제조업	100,000		
조선해면기업(주)	황순하	1942	한국	제주읍	해면정제가공 판매업	180,000		
(주)조일구락부	萩原駒藏	1943	일본	제주읍	영화, 연극	21,000		
제주항운(주)	金山倉久	1943	일본	제주읍	선박, 화객운송업	195,000		
제주자동차(주)	萩原駒藏	1943	일본	제주읍	지동차운수업	500,000		
제주동주조(주)	송권은	1944	한국	성산면	소주제조, 판매업	100,000		
제주술해주조(주)	이도일	1944	한국	애월면	소주제조, 판매업	150,000		
제주남주조(주)	강문옥	1944	한국	서귀면	소주제조, 판매업	150,000		

주1 : (주)=주식회사, (자)=합자회사, (명)=합명회사, (유)=유한회사

주2 : →는 상호변경 회사를 표시함.

자료 : 朝鮮總督府(각 년도), 『朝鮮總督府官報(1910-1945)』에서 조사 작성.

〈부록 2〉 제주도 기업가별 현황(1931년 현재)

기업가	연령	업종	설립 연월	매출액	부동산	기타 자산	순자산	신용	지불 상태	업태	동업 순위
朴 宗 實	49	식료품, 잡화	1905.8	46,800	45,000	40,000	70,000	A	B	B	1
中村 鶴松	52	표고, 잡화	1905.9	17,000	9,000	15,000	15,000	A	A	B	1
西鄕 武十	59	잡화	1906.2	5,500	8,000	2,000	5,000	B	C	C	2
衛藤伊三郎	56	미곡, 표고	1906.4	31,000	10,000	28,000	20,000	A	A	A	1
由口 源藏	48	토지경영	1906.5	13,000	25,000	10,000	-	B	B	C	1
金 時 善	51	통조림, 포목	1906.6	62,000	10,000	12,000	9,000	A	A	B	1
廣瀨千代藏	52	건축, 청부	1908.6	40,000	15,000	5,000	6,000	B	C	C	1
崔 允 淳	45	綿제조, 금화	1909.1	43,000	6,000	40,000	30,000	A	A	A	1
角 健 輔	49	목재, 잡화	1909.2	36,000	30,000	60,000	65,000	A	A	A	1
村田嘉藤治	64	잡화	1909.7	42,000	20,000	35,000	18,000	A	A	C	1
木澤友次郎	67	식료, 잡화	1911.3	17,000	5,000	6,000	8,000	A	A	B	1
金 栽 煥	24	포목	1912.3	7,000	7,000	5,000	8,000	B	B	C	2
白 京 淑	52	포목	1914.1	31,500	18,000	8,500	20,000	B	A	A	1
金 錫 潤	35	정미	1914.3	9,400	2,000	35,000	3,000	B	A	B	2
黃 鎭 益	35	포목	1920.1	10,000	1,200	5,000	3,000	C	B	C	2
李 順 鄕	39	미곡, 당분	1920.2	26,000	4,000	8,000	7,000	B	A	B	1
古賀龜太郎	54	미곡, 잡화	1921.1	18,000	35,000	900	8,000	A	A	B	1
朴 離 爀	60	기와제조, 운수	1921.4	18,000	20,000	15,000	25,000	A	C	C	1
金 己 祚	43	목재	1922.5	30,000	5,000	7,000	6,000	C	C	C	1
文 公 燦	46	포목	1923.2	14,000	5,000	3,500	5,000	B	B	B	1
文 景 玩	51	포목	1923.3	20,000	5,000	3,000	5,000	B	A	B	2
韓 錫 範	51	포목	1923.3	17,000	4,000	5,000	5,000	B	A	C	1
田口象次郎	48	문방구	1923.4	18,000	8,000	7,000	8,000	B	C	C	1
李 允 熙	50	回漕	1924.6	7,000	10,000	25,000	-	B	A	B	1
石井榮太郎	58	吳服, 잡화	1924.7	6,100	10,000	30,000	30,000	A	A	C	1
康 行 杓	51	해산물, 청부	1925.1	5,000	15,000	2,000	-	C	C	C	2
康 芝 洙	42	미곡, 金貨	1925.4	5,000	15,000	10,000	16,000	A	A	C	1
宋 鐘 鉉	31	주류 판매	1926.1	-	18,000	-	-	B	B	C	1
尹 甫 容	40	포목	1926.4	33,000	5,000	8,000	8,000	B	B	B	1

출처 : 岡田寅喜編, 『朝鮮實業信用大鑑』, 1930년.

〈부록 3〉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個人履歷書

성명	출생	출생지	최종학력	업종	주요 활동	유형
康箕贊	1903	제주시 건입동	제주공립보통학교	해운업	소비조합운영(1927)	IV
康性益	1892	서귀포시 법환동	한문수학	운수업	제주남부운수(1922)	III
康才良	1917	북제주군 성산읍	名古屋고등공업학교	제조업	濟州酒精, 삼양기업	III
姜昌輔	1902	제주읍 용담리	京城사립中東학교	잡화상	잡화상경영	IV
高甲善	1914	북제주군 한림리	大阪풍기보습상업학교	잡화상	잡화상경영	IV
高秉禧	1900	제주읍 삼도리	제주공립농업학교	잡화상	宇利稧조합(1929)	IV
高守善	1898	남제주군 대정읍	京城여자고등보통학교	잡화판매업	共益商會	IV
高永禧	1906	제주시 건입동	불명	해운업	宇利稧조합(1929)	IV
高雲善	1907	북제주군 한림리	제주공립농업학교	잡화상	잡화상경영	IV
高殷三	1892	북제주군 성산면	불명	통조림가공업	三成商會통조림공장	IV
高仁道	1896	제주시 건입동	불명	어업조합경영	제주어업조합	III
高載崙	1898	북제주군 조천리	京城사립中東학교	주조업	남제주주조(주)	IV
金京奉	1908	제주시 건입동	제주공립보통학교	양화상	洋靴商경영(1929)	IV
金根蓍	1875	제주시 건입동	충남사립玉成학교	운송업	제주상선회사(1922)	II
金道準	1913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사립보통학교	양묘업	養苗業경영(1940)	II
金道鉉	1880	북제주군 애월읍	한문수학	주조업	제주금융조합(1926)	II
金順鍾	1899	북제주군 구좌읍	불명	잡화상	잡화상경영	IV
金淳鐸	1895	북제주군 조천읍	제주공립농업학교	잡화상	신좌소비조합(1930)	IV
金時容	1906	북제주군 조천리	일본早稻田대학	제재업	목재제재업경영	IV
金時殷	1887	북제주군 조천읍	서울사립徽文학교	잡화상	잡화상경영	IV
金信鉉	1895	북제주군 애월읍	한문수학	잡화상	잡화상경영	I
金瀛熙	1896	북제주군 애월읍	제주공립보통학교	표고업	표고상경영	III
金元根	1907	북제주군 함덕리	조천공립보통학교	매약상	신좌소비조합	IV
金墊煥	1902	북제주군 조천읍	서울사립중동학교	소비조합경영	신좌소비조합(1927)	IV
金潤玉	1907	제주시 화북동	화북사립보통학교	미곡상	미곡상경영	IV
金仲鉉	1914	제주시 삼도리	京城사립상업학교	미싱업	미싱(재봉틀)상점경영	IV
金鎭燮	1911	북제주군 함림리	한림공립보통학교	어물상	어물상경영	IV
金鎭洙	1914	북제주군 조천리	조천공립보통학교	잡화상	접화상경영	IV
金鎭河	1913	북제주군 조천리	조천공립보통학교	잡화상	잡화상경영	IV
金澤銖	1901	제주시 일도리	서울사립普成전문학교	주류 판매업	잡화상경영	IV
金平遠	1915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공립보통학교	잡화상	신좌소비조합	IV
朴宗實	1885	제주시 이도동	한문수학	잡화판매업	박종실상점(1910)	I
夫生鍾	1909	북제주군 함덕리	조천공립보통학교	해산물상	해산물상경영	IV
夫泰煥	1910	북제주군 대정읍	제주공립농업학교	고무신상점	고무신상점 경영	IV
宋權殷	1884	남제주군 표선면	한문서당	제조업	南昌양조장(1928)	I

성명	출생	출생지	최종학력	업종	주요 활동	유형
宋鍾炫	1901	북제주군 신촌리	서울사립徽文고보	주류도매업	어물상·주류도매업 경영	IV
梁秉時	1914	북제주군 함림리	한림공립보통학교	잡화상	잡화상경영	IV
梁碩燦	1913	북제주군 한림리	한림공립보통학교	포목상	포목상경영	IV
梁濟博	1886	북제주군 한립읍	京城법학전문학교	제조업	조선기업(1925)	III
吳大進	1898	북제주군 대정읍	불명	단추제조업	단추제조업경영	IV
尹太錫	1913	서귀포시 서귀동	불명	어물상	어물상경영	IV
李道佰	1910	북제주군 대정면	서울普成전문학교	잡화상	정미공장경영	IV
李道一	1897	북제주군 대정읍	한문수학	잡화판매업	十一商會	I
李辛祜	1901	부제주군 대정읍	중등학교 중퇴	주류 판매업	주류상경영	IV
李允熙	1882	제주시 일도리	사립普光학교	운송업	제주운송합자회사(1924)	II
崔元淳	1876	전라남도 보성군	한문수학	운송업	제주소화운송회사	II
韓相鎬	1901	제주시 일도리	서울普成전문학교	미곡상경영	잡화상경영	IV
玄巳善	1907	북제주군 조천리	한문수학	잡화상	잡화상경영	IV
玄承五	1890	북제주군 성산면	한문수학	통조림	玄承五통조림공장(1921)	I
洪淳性	1913	제주시 일도리	불명	양화업	양화상경영	IV
黃舜河	1896	북제주군 조천읍	한문수학	주조업	제주주조(1928)	I

주 : I형=실업가, II형=실업가와 행정가, III형=실업가와 정치가, IV형=실업가와 독립운동가
자료 : 각종 자료에서 필자 작성